

시론



조영서 계수초등학교 교사

망설임의 시간과 스며드는 배움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 김애란 작가가 출연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로 단단하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했지만, 결코 진부하지 않은 표현들이었다. 질문을 이어가던 진행자는 “오늘 인터뷰는 대박이네요”라고 말하며 그 시간을 정리했다. 과정이 아니라 배움이 들었다. 질문을 하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 간의 대화 수준과 태도가 너무도 진지했고 하나도 놓칠 수 없게 알았다. 보는 내내 이런 대화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됐다.

교실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과 답이 오고 간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곧바로 답이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다. 수업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질문도, 답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질문에 아이들이 바로 답하지 못하거나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면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종종 말을 덧붙인다. “좀 더 생각해 볼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까?”라며 정답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망설임의 시간은 조용히 사라진다. 아이들이 망설

이는 순간을 답을 모르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을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아이는 말을 고르고, 생각을 뒤적이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작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망설임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고민과 아픔을 들을 때, 말을 삼키고 주저하는 찰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주저함 속에는 배려와 품위가 함께 있고 빠르게 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움을 설명과 전달의 문제로 여겨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이 있다. 망설임의 시간이다. 작가의 말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그 망설임이라면 그 시간을 우리는 고민하고 이해하고 사유하며 성장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성숙함의 시간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또한 문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진실과 고통은 반드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속도로, 말하고 싶은 만큼 전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문학은 내용을 전달하는 장라기보다,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 말했다. 이 말은 교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움 역시 일정한 속도로 압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질문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저마다의 시간과 속도 속에서 아이는 생각을 고르고, 말을 다듬고, 스스로를 확인한다.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배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간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빠

른 답을 선호한다. 침묵은 불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망설임은 미숙함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쉽게 말하지 않는 태도, 곧바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 한번 더 생각하는 태도는 배움이 깊어지는 방향과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교육에서 아이들의 저마다의 속도와 마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김애란 작가는 평론가가 자신을 사회학자라고 칭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쓰는 소설을 집에 비유하며, 사회적 주제를 콘크리트 뼈대나 구조로 세우지 않고 독자가 그 집을 나왔을 때 사회적 공기가 몸에 넘새처럼 배어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읽는 동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책을 덮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 안에 남아 있는 것. 문학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표현이었다.

배움도 그와 닮아야 하지 않을까. 교실을 나서는 순간, 명확히 설명되는 않더라도 배움과 가치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어느 날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빠르게 정리된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천천히 스며드는 경험과 교육일 것이다. 배움은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답이 나오기 전의 시간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의 망설임을 기다려주며 그 느리고 조용한 순간이 천천히 아이들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아이들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하고픈 만큼, 무한대로 빛을 내는 모습이 있길 바란다.

社說

두 번의 눈물은 없다, COP33 여수 유치 꼭 성공해야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3차 당사국총회(COP33) 장소로 대한민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는 198개 국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초대규모 회의이다. 33차는 대륙별 순회 방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차례인데, 최근 인도가 유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제된 상황이다.

개최지는 2026년 하반기 권역 내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2026년 COP31이나 2027년 COP32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민국 유치 표명과 함께 남해안 남중권을 선지정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석유화학, 철강 등 핵심 기간산업이 밀집한 온실가스 다량 배출지역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현할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등 풍부한 경험과 시설, 기후-에너지 산업 기반 등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 세계 기후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전남광주특별

시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기후위기 문제를 주도하는 리더로 거듭날 중대한 기회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COP33이 반드시 열리기를 바란다.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인도가 자신 포기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여론을 환기하고 선점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미 COP33을 완벽하게 치러낼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당위성은 충분하다.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결집해야 한다. 9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바다.

전남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COP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고 여수시와 함께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기반을 넓혀왔다. 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두 번의 눈물은 없다.

통합특별시 값싼 전력 공급 애써달라는 기업의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기업들이 저렴한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고 한다. 광주상공회의소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해 106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시장에게 바라는 의견 조사 결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와 함께 첫 번째로 꼽은 것이다.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투자 보조금 확대 및 법인세·지방세 감면과 비해서도 높았다. 일회성 세제 혜택보다 더 실효적인 비용 절감을 선택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대기업·엔지니어링 부재에 따른 산업 생태계 고립과 청년 인구 유출 및 인재 확보난을 들었다. 민선 9기 전남광주특별시장도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우수 기업 모시기와 대규모 투자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대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각 정당 후보자들의 역점 공약도 이와 다르지 않다. 광주상의 발전소 인접지에서 직접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

消) 원칙을 확립하고 송·배전 비용을 합리적으로 상정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이득이라며 설비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원거리 송전망 구축 및 에너지 손실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지역업계는 전남광주통합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값싼 전력을 제공하는 기본 인프라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중증전장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휴전 협상을 통해 종전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보다 급등한 에너지 부담이 경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의 강점인 AI 등 첨단산업과 전남의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유수의 기업이 와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많은 청년이 모인다. 떠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이다. 광주상의 설문 결과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기고



김경한 광주시 청년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청년의 목소리 이제는 들어주실 건가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도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속의는 생략했고 소수의 결정을 따라 불규칙하게 전전할 뿐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가야 할 길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진심마저 외면할 수 없기에 청년은 또다시 살길을 찾아야만 한다.

지역마다 청년 거버넌스가 있고 청년들은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이며 일 년에 1-2번 형식적인 회의와 사진 찍기를 위한 도구 정도로 활용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당장 먹고살기 힘들지만 남은 힘을 쥐어짜서 기대를 걸고 지원한 거버넌스의 운영은 매년 해야 하는 행정업무처럼 쳇바퀴를 돌고 선출자는 청년과 만나서는 본인의 치적을 한참 떠들고서야 길어야 30분 남짓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척한다. 행정이 나눠져 있을 때도 제대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버넌스가 과연 통합 후 쏟아질 더 다양하고 넓은 의

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직제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실행의 책임까지 맡을 수 있는 보직 신설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이나 정치인이 본인의 다음 행보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대신 청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탄탄한 중간지원조직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실무형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들이 흠어진 자원을 연계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도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문화예술, 교육, 복지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설계로 전환돼 '지속 가능한 광주전남 청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상의 세밀한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을 짜거나 지역 거점 공간의 특성을 살려 특정 세대를 위한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듯 청년 정책 역시 현장의 디테일을 살린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통합의 핵심 동력인 일자리 창출 역시 막연한 장밋빛 미래나 무차별적인 예산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지원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온전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단기 실적용 사업이 아니라 수년간 단계적으

로 성장하며 지역 정주를 이끄는 총출동 모델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쪼개기식 일회성 지원과 '문화예술은 공짜라는 인식 속에서 청년 기획자와 예술인들은 생계유지조차 벅찬 현실에 내몰려 있다. 청년들에게 기획자의 꿈을 안겨주었던 광주청년주간의 예산이 5년 새 75%나 삭감된 현실은 지역 청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뼈아프게 보여준다.

더불어 청년 정책이 취약계층 중심의 유행성 복지 정책에만 매몰되는 현상도 경계해야 한다.

복지 영역은 전문적인 중간조직이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정립하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20대와 30대를 아우르는 폭넓고 다양한 평범한 청년들로 확장해야 한다.

다루기 힘들고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년을 외면한다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없다. '어차피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냉소와 체념을 넘어, 이제는 진취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다가올 2028년 전남광주특별시는 사진 찍기용 마케팅이나 형식적인 거버넌스라는 과거의 껍질을 과감히 깨야 한다.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꿈꾸며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통합 그 눈부신 비상을 위해, 이제는 청년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정책으로 응답하는 광주·전남이 되길 바란다.

독자투고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초아나 동이를 무렵 새벽시간대는 칠흠같이 어둡다.

여기에 후미등이나 번호판이 더해지면 차량은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다. 이런 기상여건하에서 자가 운전자라면 한눈쯤 어두운 밤길을 운행하다 갑자기 막대한 앞선 주행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운전자 입장에서야 전방에 분명 아무런 차량 불빛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바로 앞에 진행중인 화물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사고는 이렇듯 한순간 방심과 안전 불감증에서부터 일어난다.

필자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차량 후미등과 반사경이 심하게 퇴색돼 있거나 먼지로 뒤덮인 채 운행중인 화물차량과 조우하

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후미등이 아예 커지지 않았거나 아예 파손된 채 너털너털 거리거나, 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해 시커멓게 도색돼 있는 차량도 있다. 이렇듯 차량 후방에 설치된 안전등화가 정비가 미흡할 경우 그만큼 내 차량의 위치를 알리기 어렵게 돼 후미차량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 비로소 차량을 인식해 뒤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모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후미등이 정상 작동하는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따라가는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주간 213초, 야간 208초였으나 후미등이 망가진 화물차가 급제동할 경우 후속차량의 조작 반응 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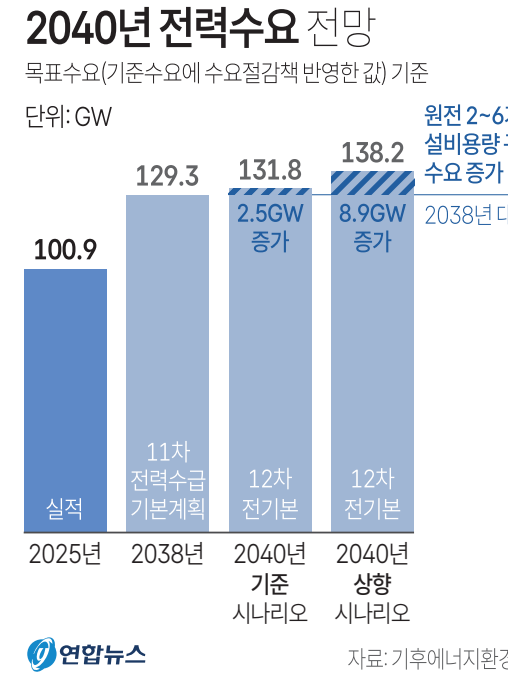
4.03초로 거의 배에 가깝다고 한다. 이는 자동차가 시속 80km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20m 이상을 더 주행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하니 가히 사고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다.

야간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후미등은 뒤따르는 차량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수시로 차량 후미등과 반사판을 세척해 안전운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야간 운전 시에는 조명등이 거의 생명이거나 마찬가지다. 교통 안전은 사소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덕형·장성경찰서 상서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14년 뒤인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가 최소 131.8GW(기가와트), 최대 138.2GW로 100GW 정도의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전력소비량은 최소 66.7TWh(테라와트시), 최대 69.1TWh로 전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12차 전기본 방향이 되는 2040년 전력 수요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이재명 정부 첫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이 된다. 전망을 보면 2040년 연중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은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기준수요 149.9GW, 목표수요 131.8GW로 예상됐다.

상향 시나리오 적용 시 기준수요 전망은 156.8GW이고 목표수요 전망은 138.2GW였다. 11차 전기본상 2038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은 기준수요 145.6GW, 목표수요 129.3GW이다. 이번 전망과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8년과 2040년 사이 최대 전력 수요가 25GW에서 8.9GW 늘어나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 2-6기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